

즐거운 캠핑, 화재 안전에 유의하세요!

- 텐트 안 화기 사용 자제 및 바비큐·모닥불 후 잔불 정리 철저
- 취침 시에는 침낭이나 보온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 유지

연중 5월은 여름 휴가철을 제외하고 캠핑객이 가장 많은 시기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최근 강원 양양의 캠핑장 텐트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시고 병원치료를 받는 사고('26.5.9.)도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캠핑 시 발생하기 쉬운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2020~2024년 월별 야영(캠핑) 이용 현황 >



[출처: 2024 숙박시설유형별 이용총량, 문화체육관광부]

캠핑장에서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바비큐(38.0%), 요리(19.8%), 모닥불 놀이(17.6%), 휴식(15.6%) 등으로, 캠핑장 활동의 대부분이 불을 이용하는 만큼 화재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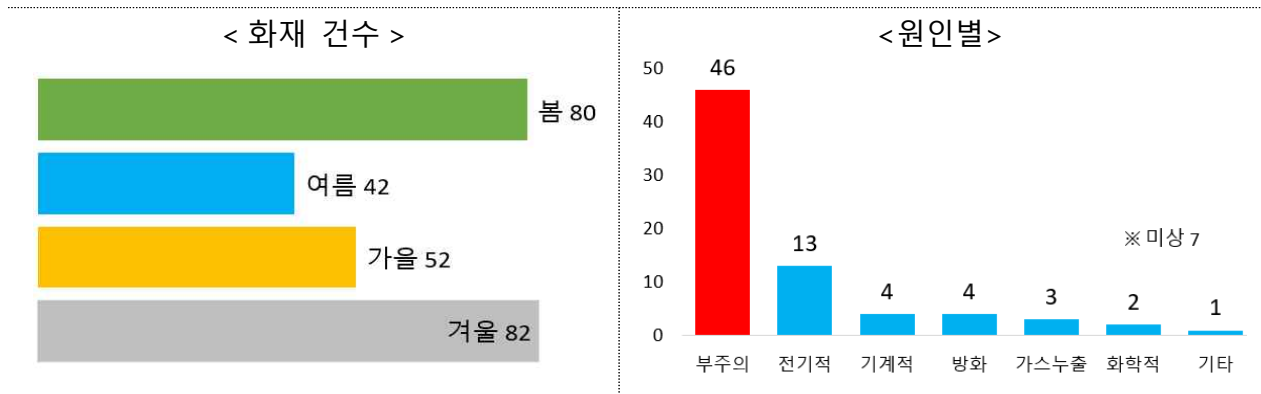
구분	바비큐	요리	모닥불 놀이	휴식	수영	걷기 하이킹	기타 (등산, 낚시 등)
캠핑장에서 많이 하는 활동(%)	38.0	19.8	17.6	15.6	2.6	2.4	4.0

[출처: 2024 기준 캠핑이용자 실태조사, 한국관광공사]

최근 5년간(2021~2025년) 봄철에 발생한 캠핑장 화재는 80건으로 화기 사용이 많은 겨울철(82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원인별로는 불씨 방치나 조리 중 부주의가 58%(46건)로 가장 많았고, 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 16%(13건), 과열 등으로 인한 기계적 요인(5%, 4건)이 뒤를 이었다.

< 2021~2025년 캠핑장 화재 현황 >

(단위: 건)



[제공, 소방청]

캠핑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수칙을 잘 지킨다.

캠핑장에서는 대피소 등 주변 시설 배치, 소화 기구 위치, 이용자 안전 수칙을 미리 확인한다.

전기 연장선을 사용할 때는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한다. 전선이 감겨 있는 상태로 오랜 시간 사용하면 과열되거나 전선의 피복이 손상돼 화재 위험이 크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전기 제품을 연결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전원 플러그와 콘센트가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모닥불을 피울 땐 화로를 사용하고, 주변 바닥에 물을 뿌려 화재를 예방한다. 모닥불을 피운 후에는 잔불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정리한다.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이나 난로를 사용하는 것은 화재뿐만 아니라 질식 등 사고 위험이 크다. 잠을 잘 때는 침낭 등 보온용품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한다.

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해, 캠핑장에서 바비큐나 모닥물 놀이를 할 경우에는 주변 소화기 위치를 꼭 확인하고, 자리를 정리할 때는 마지막 불씨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총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책임자	과장 이치선 (044-205-4510)
		담당자	사무관 송정호 (044-205-4505)
화재통계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책임자	과장 이중기 (044-205-7470)
		담당자	주무관 임영채 (044-205-7476)



